

제2338호 2018.12.30.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가정 성화 주간)

강론

작은 교회 - 성가정

가정은 인내와 노동의 기쁨, 형제애, 거둬지는 너그러운 용서, 그리고 특히 기도와 삶의 봉헌을 통하여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57항).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모범으로 삼고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말하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르고 있다."라고 답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 가정은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서로를 향한 정성과 애정이 점점 식어만 갑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집니다. 말이 가정이지 그저 잠만 자다 뛰쳐나가는 여인숙 같은 가정이 많습니다. 마치 무인도처럼 가족들 사이에서 전혀 대화나 소통이 없는 가정이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안타까운 사연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정을 원하는 것일까요?

보통 성당의 많은 자매님들이 성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가족과 함께 성당에 가는 것을 최고의 은총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가정이라 함은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가정이라 하지 않습니다.(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성가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구성원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너그럽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가정은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각자의 끝없는 노력, 실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정의 중심에 주님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성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 않은 가정이, 문제없는 가정이 과연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주님을 모시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 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족은 성가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영어로 FAMILY라고 하는데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는 문장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족들에게 다른 인사말보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보면 어떨까요?

교구민 모든 가정에 주님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 함께하는 또는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쯤 바라보고 떠올려 보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환 베드로 신부 | 상남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3면 2019 부제 서품식 안내

제1독서

집회 3,2-6.12-14 또는 1사무 1,20-22.24-28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2독서

콜로 3,12-21 또는 1요한 3,1-2.21-2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루카 2,41-52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알아낸 죄를 낱알이 고백한다. 죄를 고백한 다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범한 중요한 잘못을 “낱알이 고백”에 두셨습니까? “이 밖에”에 두셨습니까?

판공성사는 부담스럽습니다. 의무라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고해성사 자체에 대한 부담, 즉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개별적으로 고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개별적 고백의 초점은, 내가 사제 개인에게 내 죄를 까발리느냐 마느냐가 아닌, 내가 두려움으로 쌓아 올린 벽을 스스로 허물고 나올 수 있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마을 촌장이 짐을 덜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서 야곱을 찾아왔다.

“야곱, 꿈에서 나는 멀리 여행을 떠나 결국 큰 도시에 도착한다네. 하지만 도시 성문에서 키 큰 병사를 만나는 데, 그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자네가 도와주겠나? 병사의 첫 번째 질문은 ‘도시의 성벽을 떠받치는 것은 무엇인가’라네.”

“그거야 쉽지요. 도시의 벽을 떠받치는 것은 두려움이니깐요.”

“하지만 두려움을 떠받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두 번째 질문이라네.”

“벽입니다. 우리가 타고 오를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벽이 되니깐요.”

— 노아 벤샤, 빵장수 야곱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 1요한 4,18

●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북한이탈주민(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공식 명칭) 정착지원사업

소식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 김정훈 라파엘 신부)는 지난 11월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 “나눔·자유·평화” 행사를 작은자매관상수녀회와 진동 가르멜수도원에서 실시하였다. 행사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어 자신들의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한 “책이랑 놀자” 프로그램이 11월과 12월에 마산·창원지구와 진주지구, 거제지구에서 각 지구별로 진행

되었다. 자녀들은 서점에서 직접 책을 고르고 부모들과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7개의 본당(옥포, 가좌동, 진영, 용잠, 반송, 덕산동, 호계) 및 교구청에서 37명(초등학생 15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1명)의 학생에게 9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 하였으며, 가좌동본당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마련해주었다. 교구 민화위에서는 장학금 전달에 함께 해준 본당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 교정사목공동체 세례식

교정사목후원회(담당 : 이우진 요한 신부)는 12월 6일과 11일에 교정공동체인 창원임마누엘공소와 진주대곡공소에서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세례식에서는 창원임마누엘공소 7명, 진주대곡공소 8명, 총 15명의 형제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년간의 교리공부를 마치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우진 신부는 “세례를 받은 형제들

이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교정사목에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들과 봉사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라고 전하였다. 창원공동체, 진주공동체, 통영공동체에서는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방학에 들어갔다.



2019 교구 부제 서품식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정성어린 기도 속에 교구 신학생 5명이 부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들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목자의 길을 따라 일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단

부제품 대상자



서시몬 시몬
진영본당



조현석 엑스수페리오
석전동본당



이승언 토마스 아퀴나스
덕산동본당



박진용 프란치스코
하대동본당



김동윤 율리아노
호계본당

사제들을 위한 기도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사랑하는 사제들을 굽어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증언하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믿음을 따르고 지켜가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봉사를 본받고 실천하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가난을 받아들여 자유롭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겸손을 배워 스스로 낮추게 하소서.
사제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하느님 백성의 길잡이가 되고 일치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사제들이 모범이 되어 성실한 젊은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 일 시 : 2019년 1월 8일(화) 14:00 | ■ 장 소 : 성지여고 강당 | ■ 주 레 :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성직자 병, 넷”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중년의 남성이 어두운 지하실에 감금된 채 긴장한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명 소리가 낭자하고 욕설이 난무합니다. 중년 사내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끊으며 보스가 나섭니다. 다른 사내들과 달리 곱상한 얼굴에 체격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피우던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겨 내자, 폭행을 하던 험상궂은 사내들이 쩍싸게 차렷 자세로 섭니다. 보스가 피로 범벅이 된 중년의 얼굴을 들어 올리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빗 값아, 안 그럼 죽어!” 주위가 싸늘하니 조용해집니다. 이때 중년의 사내가 (쿨럭쿨럭)피를 토하며 한마디 합니다. “두목님, 이제까지 한 번도 좋은 말 하신 적 없잖아요?” 그날 이후 중년의 사내를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조폭들은 직업윤리 때문에 말이 험하고 아무에게나 반말을 찍찍해야 합니다. 만약 조폭이 좋은 말 고운 말을 쓴다면 상대방이 겁을 먹겠습니까? 막말로 조폭이 가진 거라고는 두 주먹과 깡다구, 험악한 표정, 생각 없이 내뱉는 반말지거리, 꺾렁꺾렁한 자세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상한 머리카, 성실한 생활 자세, 따뜻한 가족 관계 등...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만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조폭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직업의 특성상 아무나 보고 반말을 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입니다. 조폭들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지 않더라도 비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조폭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할 성직자들이 아무나 보고 반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2018년 제18회 가정 성화 주간(12월 30일~2019년 1월 5일) 담화문(요약)



생명을 품는 가정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환호하는 이 축제의 시기에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 보여 준 믿음과 사랑은(루카 1,26-38; 마태 1,18-25 참조) 한 줄기 은은한 빛이 되어 고요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인 채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를

위로하며 건네는 사랑의 눈길은 그동안 겪었던 수고로움에 대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

살아 있는 우리 모두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나약하고 힘없는 생명은 반드시 다른 생명의 보살핌과 희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의 유대는 상호 간의 나눔과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유대가 나눔과 희생이 아닌 착취와 억압으로 변질된다면 이러한 유대는 끊어지고 마침내 고립된 생명은 죽게 됩니다.

⋮

인간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루는 생명의 유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소유하며 자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피며 자녀의 생명이 의미를 찾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정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 안는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가운데 완성되며 하느님 구원 사업의 거룩한 여정에 참여합니다. 비단 성탄의 신비 안에서 드러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서뿐만 아니라 혼인의 서약으로 맺어진 모든 부부와 그들이 이루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품는 가정은 거룩하고 복됩니다.

⋮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 성화 주간을 보내면서 온전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유대를 맺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리아와 요셉이 나누었던 감사함과 미안함의 다정한 눈길을 건네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가정 안에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서로의 생명을 품어 안는 가운데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12월 30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

※ 가정 성화 주간 담화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19 새해 창을 열며

김진희 세레나 • 시인



한 해가 저물어간다. 기대에 넘쳐 의욕적으로 한 일도 지나고 보니 그렇게 아등바등 신경 쓴다고 될 일도 아니었다. 역시 시간이 해결해주고 시간이 흐르면 절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주남저수지를 향해 달리는 차 창 밖에서 탐스럽게 주홍빛을 매달던 감나무도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가고 있다. 제집을 찾아가듯 벌레며 나비, 고추잠자리, 웅기종기 핀 들국화도 모두 흔적조차 없다. 심지어 놀이터에는 조무래기 아이 하나 없는 황량한 모래바람이 불고 시린 얼굴을 때린다. 사위어가는 촛불처럼 시간이 녹아든다. 친숙한 2018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

언 손을 불며 아랫목 이불자락을 끌어당기고 얼굴만 내밀던 그 겨울이 그립다. 쉬쉬 바람 소리 내며 찬바람을 훑 불어넣던 외풍 심한 그 방이 그리워진다.

연말이 다가오는 이맘때가 되면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하던 그 시간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려온다. 군것질거리라곤 제대로 없어 학교 앞 리어카에서 팔던 칠팔리며 당근, 연뿌리를 간식처럼 먹던 때, 크리스마스 날 저녁 엄마가 장롱 안에서 꺼내온 것은 최고 맛있는 과자였다. 지금은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병, 오란다... 옛날 과자들이 유리 진열대 안에 차려진 고급 과자들이었다. 상위에 차려진 맛있는 과자를 보면서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는데 맨 마지막에 부른 노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얼른 그 과자를 낚아채서 언니 동생보다 더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때 먹는 과자 맛

이라니 '세상에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가 또 있을까' 생각했다.

지난달, 통일부 하나원에 다녀왔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초기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 진출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하는 곳이다.

얼굴 생김새며 말씨, 옷매무새, 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학생들, 나와 같은 또 다른 내 모습이었다. 새로운 나를 만난 것처럼 그들도 나처럼 사고하고 나와 같이 말하고 웃고 또 슬퍼했다. 또박또박 쓰인 편지글에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새로운 정착을 위해 꿈을 다지고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그들만의 아픔과 그리움이 가슴속에 박혀 있는 듯했다.

먹을 것, 입을 것, 생필품 모든 것이 귀한 그들에게는 우리의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더위와 추위에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시절,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자연에 순응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그들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라도 한겨울 북한에서 형제끼리 서로 먼저 먹으려고 싸우던 그 달콤 짭컌한 맛에 비하랴.

2019년 새해가 밝아 온다. 멀리서 손 흔드는 평화의 깃발이 펄럭인다. 언젠가 그들도 옛날을 추억하며 그 시절을 말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리라. 그날이 머지않아 곧 올 것만 같다. 모두의 가슴에 훈풍이 불어오는 새봄을 위해 창을 활짝 열어야겠다.



교구장 동정

일 정 : 2019. 1. 1.(화)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내 용 : 신년미사

수품자 피정

일 정 : 2019. 1. 1.(화)~7.(월) 6박 7일
장 소 : 성혈 영성의 집

교 구

- 학부, 졸업생 모라토리움 시작
일 정 : 2019. 1월부터
- 2019년 토래사도 양성연수
일 시 : 1과정 - 2019. 1. 4.(금) 14:30~6.(주일) 15:30 2박 3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2019년도 학생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각 본당 4명 이하)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따뜻한 옷, 비상약, 주일 봉헌금, 개인컵 등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52~3
- 2019년 주일학교 대표교사 연수
일 시 : 2019. 1. 27.(주일) 09:30~16:0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2019년 초, 중·고등부 대표교사
내 용 : 2019년도 청소년국 사목방향 및 행사 안내, 교사관리 시스템 안내, 지구 행사 소개
참가비 : 1인 1만 2천 원
준비물 : 2019년 교사수첩, 개인 컵, 필기도구
신 청 : 2019. 1. 11.(금)까지 신청서, 참가

비를 청소년국 팩스발송 및 입금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52~3

- 청년 간부 및 단체장 상반기 연수
일 시 : 2019. 1. 5.(토) 15:30~6.(주일) 14:30 1박 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내 용 : 청년회 간부 리더십 함양 및 청년회 운영 전반 교육
대 상 : 교구·지구 연합회장단, 본당 청년회 간부, 사도직 단체장, 대학 회장단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개인컵
문 의 : 청년부 055)249-7065

- 2019년 초등부 신입 복사학교
일 시 : 1차 - 2019. 1. 14.(월) 14:00~15.(화) 13:00(마산·진주지구)
2차 - 2019. 1. 15.(화) 14:00~16.(수) 13:00(창원·거제지구)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2018년도 기준 초등부 신입 복사
참가비 : 1인 4만 5천 원(※교구사목비 면제본당 : 1인 3만 원) 계좌 - KEB하나은행 160-890023-05404(재)마산교구(입금자명 : 본당이름+복사)
신 청 : 12. 31.(월)까지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1, 2차 모두 차수 당 120명 선착순 접수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기 관 · 단 체

- 교구 레지아 평의회
일 정 : 2019. 1. 6.(주일)
장 소 : 교구청
문 의 : 레지아 055)249-7115
-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 시 : 2019. 1. 6.(주일) 15:00
장 소 : 남동성당
문 의 : 농아선교회 011-9207-8856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2019년 1월 봉사자 월례회
일 시 : 2019. 1. 14.(월) 13:00
장 소 : 옥봉동성당
특 강 : 성체조배회와 성령의열매
(강사 - 이청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대 상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문 의 : 담당자 010-3903-8234
- 2019년 1월 사회교리 및 미사
일 시 : 2019. 1. 14.(월) 19:3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미사 주례 및 강사 : 총대리 박창균 신부
주 제 : 생명의 원천이었던 짚은 돈 앞에서 물질이 되었다.
문 의 :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 신앙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
일 시 : 2019. 1. 19.(토) 10:30
장 소 : 교구청 2층 회의실
문 의 : 총동문회장 010-4581-5420
-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 정 : 매월 첫째 주(토)
장 소 : (마산)월영성당 10:00
(창원)사파동성당 10:00
(진해)중앙동성당 10:00
(거제)고현성당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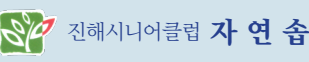


라파엘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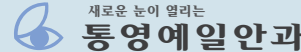
- ◆ 이스라엘 9월 2/2 (375만원)
 - ◆ 이스라엘 요르단 10월 3/13 (289만원)
 - ◆ 나가사키 4월 2/27, 3/19 (94만 9천원)
 - ◆ 다낭 5월 2/24, 3/10 (129만원)
-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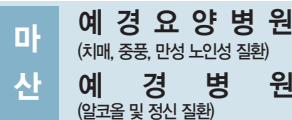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병원장 강여화(데레사)
뇌졸중·수술 후 재활/ 암·노인·치매 병동
진주에서 15분, 사천 IC 3분
055)855-8557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 백내장 클리닉 ◆ 안성형 및 사시 클리닉
통영시 중앙로 240 통영메디칼 빌딩 2층 외래진료/
6층 수술센터 www.yeileyes.co.kr
원장 : 강태중 프란치스코
055)644-5419, 646-7968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좋은벗 상담교육센터

개인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부모교육/ 심리검사/ 청소년상담/
학습클리닉/ 상담전문가 양성
소장 김홍숙 세레나
www.joeunbut.net
055)266-7942
가톨릭마산 매월 마지막 주 '가정상담' 연재 중



(통영)대전성당 10:30
문 의 :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 산 : 첫째 주(화) 10:30 교구청
창 원 : 첫째 주(목) 20:10 사과동성당
첫째 주(금) 10:30 대방동성당
진 해 :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진 주 : 첫째 주(월) 10:00 하대동
문 의 :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 교구 내 병원 미사 안내

마 산 : 삼성병원 매주(금) 18:00
본관 2층 1회의실(접수·수납 창구 맞은편)
창 원 : 파티마병원 매주(수) 16:00
매(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매주(수) 18:00 지하 1층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 주 :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지하성당

■ 도박을 끊고 싶으십니까?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7:00
문 의 : 담당자 010-9992-3443

■ 꽃동네대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신입생 장학금 전원 지급
·취업을 충북 1위, 학생 1인당 장학금 충북 1위
모집학과 :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간호학과
원서접수 : 12. 29.(토)~2019. 1. 3.(목)
문 의 : 043)270-0100

■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일 시 : 2019. 1. 4.(금) 18:00~6.(주일) 15:00
장 소 :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 발 : 마산역 김안과 앞 11:40
문 의 : 043)213-9103, 010-2373-0125

■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일 시 : 2019. 1. 5.(토) 15:00~19:00
장 소 : 서울가톨릭대학 의과학 연구원
대강당 2층(서울성모병원 내)
대 상 : 청년 및 청소년, 일반신자 누구나
참배 : 1만 원(간식 제공)
주 최 :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문 의 : 02)6253-3373, 010-8360-3700

■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는 관광 및 성지 안내와 함께 차량, 호텔, 팬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 의 : 064)758-6476, 010-4566-6476

✦ 최종태 신부 부친 선종

최종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팔용동본당 주임) 부친 최동규(바오로)님께서 12월 20일(목) 새벽 5시경 지병(항년 78세)으로 선종하여 12월 22일(토) 사과동성당에서 장례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조문하여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 상평동본당 사무장 모집 ◆

모집인원 : 1명
접 수 : 2019. 1. 13.(주일)까지
문 의 : 본당 사무실 055)752-5922,
010-6583-1884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기 락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12. 31.(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관개로 기도회 쉽니다.			010-5072-5612
창원지구	12. 31.(월) 19:00	명서동성당	송년 기도회	최재상 신부(마티아)	최재상 신부(마티아)	010-4553-7425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스승예수제자수녀회	2019. 1. 6.(주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9. 1. 6.(주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품격 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2월 19일 이스라엘 요르단
대한항공 11일 (399만원)

■ 4월 7일 터키 그리스
대한항공 12일 (379만원)

※ 공동경비포함
본도여행사 ☎ 02)852-852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가톨릭마산

교구보 2019년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 문 의 : 미디어국 055)249-7072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대헌장

“오직 사랑만이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식을 구별해 줍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성호를 긋고, 모두가 “아멘” 하고 대답하고, ‘알렐루야’를 노래한다 할지라도, 또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고, 성전을 지어 올린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식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뿐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표지요, 위대한 식별입니다. 그대, 원하는 것 다 가지십시오, 그러나 이것 하나를 지니지 못한다면, 그대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할지언정,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그대는 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로마 13,8)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로마 13,10)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장사꾼이 찾는 진주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것을 샀습니다(마태 13,46). 이 값진 진주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그대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 이 사랑 하나만 지닌다면,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서간 강해』 5,7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출처: 쿠틀루스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교부들 가운데 우뚝 솟은 큰 산이다. 길고 오랜 방황 끝에 뒤늦게 그리스도교에 귀의한 그는,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바쳤다.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40년 가까운 사목 기간 내내 민중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수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요한 서간 강해』는 가장 아름다운 교부 문헌으로 손꼽힌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요한의 말씀보다 더 큰 사랑의 찬가를 성경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요한의 첫째 편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노래한다. 요한의 편지가 우리 가슴에 사랑의 불을 놓았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요한 서간 강해』는 그 사랑의 불길에 끼얹는 기름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06/7년경 부활 축제 시기에 신자들을 대상으로 열 차례에 걸쳐 요한의 첫째 서간을 강해했다. 전례 도중에 제법 길게 행해진 이 강해는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이 작품을 읽노라면 민중 앞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뜨겁게 선포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숨결마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듯하다. 신약과 구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성경의 핵심을 꿰뚫을 때면, 청중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하느님을 찬미하곤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사랑은 처음과 마지막 말이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몸은 비록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영으로는 이미 교회 바깥에 있다. 사랑이 없는 그곳에서는 심지어 성사마저도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반문한다. “그대가 행동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모두가 그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준다면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상이 없는데 말입니다.” “의사라고 불리지만 치료할 줄 모르는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파수꾼이라 불리지만 밤새 잠만 자는 파수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만 실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행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자신들이 불리는 그 이름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 십자성호를 긋고, “아멘” 하며 기도하고, 꼬박꼬박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만 지닌 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여 사랑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더 이상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다.